

본 브리핑은 페로타임즈 편집국에서 매주 발간하는 Report입니다.
원료, 가격, 해외동향 등을 유료회원에게만 제공하여 드립니다.

주간 시황 Report

2021. 06. 06. 제 47 호



(요약)

1. 6월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 철강업황 '황금기' 종료...하락국면 전환 '연착륙 시도할 때'
- 철광석 210달러 기록 후 추세적 하락 불가피
- 철스크랩(고철) 터키·동남아 하락 불구 강세 지속 관측
- 한국 시장 高價 저항감 비수기 추세적 하락

2. 철광석

- 4일 208.7달러 5월 말 대비 5.6%↑ 전일 대비 1.0% 하락
- 원료탄 282달러 기록 5월 말 대비 10.7%↑ 전일 보합 기록
- 비수기 중국 및 글로벌 생산 둔화 증장기 수요 감소 추세

3. 철스크랩

- 글로벌 하락 조정 '高價' 유지...관망 속 美日 수출가격 상승 관측
- 미국 내수 50달러 이상 상승 오퍼價 반등...국내외 수요증가 공급 부족감
- 일본 한국, 중국향 오퍼 570달러까지 강세

4. 철강재

- 철강 가격 상반기 상승세 '끝'...하반기 연착륙 시도해야
- 고점 인식 확산...高價에 대한 저항감 계속 증가에 주목할 시기
- 중국 5월 폭락 이후 6월 첫주 일부 회복, 안정세...비수기 수요 둔화 확산
 - . 당산시 생산 규제 완화로 공급부족 신속 해소 가능성 커져
 - . 중국산 현지 오퍼 열연 FOB 930달러, 철근 765달러
- 한국 유통 가격
 - . 열연 포스코대응재 130만원, 중국산 125만원
 - . 철근 국산 115만원, 중국산 135만원

시황분석리포트

2021년 6월 1주차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FERRO INDEX] 철강재 및 원료 가격 종합

단위 : 달러/톤, CFR

구분	세부 항목	5-1주	5-4주	6-1주	변동폭		
					일주일	1개월	
철광석 원료탄	글로벌 Fe 62%	196	186	209	23	13	
	강점결탄	229	258	283	25	54	
철스크랩	미국산 티키 HMS 1&2	479	508	501	-7	22	
	미국산 2호 HMS 1&2	471	518	508	-10	37	
	대만 컨테이너	435	459	440	-19	5	
	일본산 일본 H2 (백엔 FOB)	439	485	475	-10	36	
	일본산 *H2 한국도착(천원)	493	533	522	-11	29	
	중국 45개시 내수 평균 (위안)	3,540	3,890	3,590	-300	50	
중국 철강재	HRS101(중량) 수입 (달러)	515	525	530	5	15	
	열연	본계강철 한국향(FOB)	-	-	1,050	-	-
		중국 오퍼(FOB)	945	890	929	39	-16
		중국 내수 가격(위안)	6,040	5,700	5,840	140	-200
	철근	사강강철 한국향(CFR)	-	-	-	-	-
		중국 오퍼(FOB)	730	758	765	7	35
		중국 내수 가격(위안)	5,490	4,870	5,110	240	-380
	냉연	냉연코일(FOB)	-	-	*920	-	-
	아연도금	아연도금코일(FOB)	-	-	*995	-	-
	반제품	빌릿 흑해 수출(FOB)	690	655	640	-15	-50
슬래브 브라질 수출(FOB)		920	980	990	10	70	
한국 철강재	열연(포스코산)	115	130	130	0	15	
	(중국산)	115	130	130	0	15	
	철근(국산)	89	101	115	14	26	
	(중국산)	92	135	137	2	45	
	한국 유통 가격	형강(국산)	101	111	115	4	14
	(포스코베트남)	99	115	117	2	18	
	앵글 채널(국산)	94	101	105	4	11	
	앵글(수입산)	80	90	93	3	13	
	잔널(수입산)	82	92	95	3	13	

- 철광석 원료탄 : 스폿계약 6/1~4일 평균
- 한국 품목별 유통가격 : 페로타임즈 자체조사, 각 품목 베이스 기준
- 철스크랩 : 최근 성약 및 오퍼 가격/페로타임즈 추정 *한국 도착 가격은 운임/환율 등에 영향
중국 : 6월 4일 기준 *HRS101 수입은 CFR 기준
- 중국 오퍼 : 무역업계 및 외신, 페로타임즈 추정/중국 내수 가격 : 상해 6월 4일 기준
- 한국향 : 열연 냉연 도금재(본계강철 매주 1회), 철근(사강강철 월초 1회) *냉연도금재 6월 첫주 추정치
- 반제품 : 빌릿(플래츠 기준), 슬래브(AMM 기준)

※ 최종 업데이트 6월 5일

*. 제공 : (주)페로타임즈

철강업황 '황금기' 종료'...하락국면 전환 '연착륙 시도할 때'

철광석 210달러 기록후 추세적 감소 불가피
고철 터키 동남아 하락 불구 강세지속 관측
철강 수요둔화 공급개선 하락 전환 관측 多
한국 시장 高價 저항감 비수기 추세적 하락

시장에서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높은 가격에 대한 저항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6월 첫 주 후반 시장에는 주문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특히 5월 중국의 증치세 환급률 폐지 이전 5~6월 선적분으로 계약한 고가(高價)의 물량들은 갈 곳을 잃었고, 업체들은 가격을 낮춰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현금화가 절실해지면서 시장 곳곳에서 투매가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해야할 시기입니다. 특히 유통 및 실수요 업체들은 올해 가격 폭등으로 구매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WSD에서 금융위기(mini-financial crisis)를 예측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고점 인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철강메이커나 유통 모두 인상보다는 가격 하락에 대비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재 가격은 5월 폭락 이후 6월 첫 주 일부 회복,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역시 추가 상승 기대감은 약합니다. 여름철 비수기 수요는 둔화되고, 이는 글로벌 전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당산시 규제 완화에 따라 비교적 높은 생산이 유지되면서 공급부족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분기 수급은 균형을 이루면서 점차적으로 공급과잉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가질 시점입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 걸친 완만한 회복세로 인해 2008년과 같은 폭락사태는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철광석 가격 역시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란 예상이 대세입니다. 철강재 가격이 약세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특히 중국 제철소들의 원가압박은 포스코 등 글로벌 기업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강재는 5월 폭락한 이후 일부 회복하는 데 그쳤지만, 철광석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철강사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가운데 철광석 수요는 철스크랩(고철)과 달리 감소 추세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당장 비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철광석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브라질, 호주의 공급은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스크랩(고철)은 강세로 예상, 철광석과는 온도차이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기로 제강사들은 고철 입고량이 비교적 원활한 데도 구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강사들의 증산에 따라 고철 공급은 부족감으로 무게가 기울어 있습니다. 포스코 등 글로벌 고로사들은 고철 사용량을 계속 늘려갈 방침이고, 전기로 증설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추세적으로 고철 가격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철광석

4일 208.7달러 5월 말 대비 5.6%↑ 전날 대비 1.0% 하락
 원료탄 282달러 기록 5월 말 대비 10.7%↑ 전날 보합기록
 비수기 중국 및 글로벌 생산 둔화 중장기 수요 감소 추세

철광석은 6월 첫 주 최고 210달러 선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단계적인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대세다. 글로벌 공급은 개선되고 여름철 비수기 생산은 감소할 것이란 예측에서다. 또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업황에 관계없이 수요는 감수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올해 글로벌 생산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고품위 철광석 수요는 가격을 지지할 요인으로 지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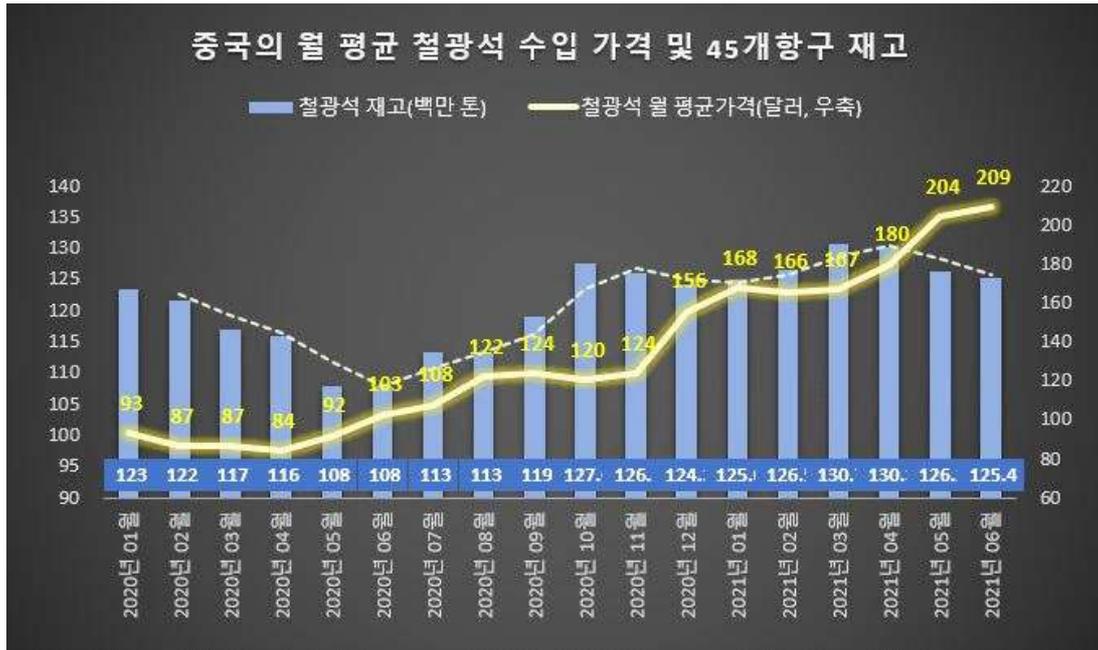
▷ 철광석 원료탄 싯물구매원가 : 6월 4일 현재

단위 달러/톤	중국 수입		
	철광석(Fe 62%)	원료탄(강점결탄)	싯물구매원가
2021-05-26	178.2	254.8	491.2
2021-05-27	187.6	262.3	512.3
2021-05-28	188.3	263.5	514.4
2021-05-31	197.5	284.7	546.3
2021-06-01	207.5	284.4	562.1
2021-06-02	208.7	283.8	563.6
2021-06-03	210.9	282.0	565.7
2021-06-04	208.65	282.04	562.2
전날 대비	-1.0%	0.0%	-0.6%
	-2.2	0.0	-3.5
5월 말 대비	5.6%	10.7%	15.2%
	30.5	27.2	74.5
4월 말 대비	11.5%	24.4%	17.0%
	21.5	55.3	82.3
2020년	31.2%	26.1%	24.7%
12월말 대비	49.7	52.2	102.7

*. 제공 : (주)페로타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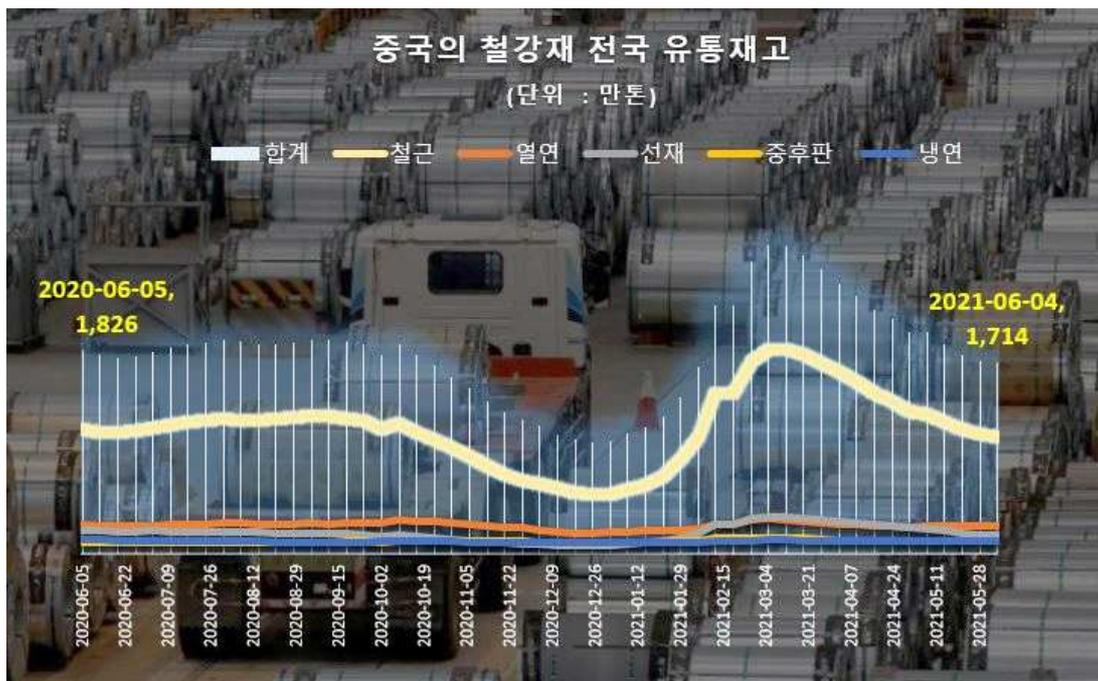
▷ 중국 45개 항구의 철광석 재고

타이트한 수급 지속...3월 이후 매월 감소세



▷ 중국 전역의 5대 철강재 유통재고 : 13주 연속 감소세 감소폭은 둔화

특이점 : 열연 중후판 재고 증가 전환...철근 선재 감소세 지속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철스크랩(고철)

글로벌 하락조정 '高價' 유지...관망 속 美日 수출가격 상승 관측

미국 내수 50달러 이상 상승 오퍼價 반등
일본 한국, 중국향 오퍼 570달러까지 강세
한국 제강사 증산기조 가동률 90% 이상
국내외 수요증가 공급은 부족감으로 기울어

글로벌 철스크랩(고철) 가격은 약 2주간의 하락 조정을 거쳐 바닥을 다지고 강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표적으로 일본 동경제철은 H2 기준 5만 엔 내외에서 가격을 동결하고 있다. 미국은 6월 내수 가격이 50달러 이상 상승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한국 시장 역시 높은 수준에서 보합세다. 전기로 제강사들은 고철 입고량이 비교적 원활한 데도 가격 인하는 신중한 모양새다. 제강사들의 증산에 따라 공급은 부족감으로 무게가 기울어 있다. 포스코는 구매에 적극적이다. 글로벌 고로사들의 추세와 같이 고철 사용량을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글로벌 철강재 및 철광석 가격은 장기적인 약세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란 관측과 달리 고철은 타이트한 수급이 가격을 지지할 전망이다.

1. 미국

- 터키의 HMS No.1&2(8:2) 수입 CFR 톤당 501달러. 일주일 10달러 하락

※ 철근 수출 가격 FOB 톤당 730달러. 20달러 하락

고철-철근 간 스프레드(격차)는 229달러. 글로벌 반등시 인상 구매여력

- 대만의 컨테이너 수입 가격 CFR 약 440달러. 20달러 하락

- 미국 서부지역 대형모선 아시아 수입 510달러 내외

※6월 일부지역 50달러 이상 급등 반등 가능성 ↑

2. 일본

- 대한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세아베스틸 6월 첫 주 입찰 실시

FOB 기준 H2 4만6000엔 신다찌 6만 엔 계약

- 동경제철 구매가격 5월19일 이후 동결 : H2 4만8000엔~5만1500엔 고가 유지

※공급부족 지속 오퍼 가격 반등 가능성 ↑

3. 오퍼 동향

- 한국 및 일본 : 중국향 HRS101 CFR 550~570달러

- 미국 HMS No.1&2(8:2) : 대만 컨테이너 CFR 445~450달러

※ 러시아 수출 금지 가능성 아래 기사 참고

[핫이슈] 유럽 고철 수출금지 초안 발표...러시아 대응책 모색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55>

페로타임즈 6월4일자

서유럽 국가를 대표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최근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회원국들의 수출 금지 품목에 철스크랩(고철)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사회 결정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오는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 7월15일부터 2022년 1월15일까지 6개월간 고철 수출을 금지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사회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철 금속 폐기물 및 스크랩(EAEU TN VED의 코드 7204)과 관련, 회원국들은 세관 통관시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된 제품은 EAEU의 내부 시장에 필수적인 제품 목록에 포함된다. 예외적인 경우 일시적인 혹은 양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다.

EAEU의 고철 수출이 금지되면, 올해 1월 아르메니아가 국가 차원에서 채택한 결정은 취소된다.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3월에 EAEU 외부로 고철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수출이 비교적 많은 러시아는 고철 수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수출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오는 7월 말 이후부터 기존 45유로의 관세를 70유로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결정한 상태다.

러시아 철스크랩협회는 수출 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EEC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수출 관세가 높아지면서 러시아 수출은 상당히 제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 현대제철은 러시아산 수입 입찰을 실시하고 A3에 대해 CFR 톤당 488달러를 비드 가격으로 제시했다. 해외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10달러 이상 낮다는 평가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최근 회원국들의 고철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입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철강재

철강 가격 상반기 상승세 '끝'...하반기 연착륙 시도해야

시장에서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높은 가격에 대한 저항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시기다. 대표적으로 6월 첫 주 후판 시장에는 주문이 사실상 끊겼다. 특히 5월 중국의 증치세 환급률 폐지 이전 5~6월 선적분으로 계약한 고가(高價)의 물량들은 갈 곳을 잃었다.

현금화가 절실해지면서 시장 곳곳에서 투매가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특히 유통 및 실수요 업체들은 올해 가격 폭등으로 구매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더 이상 고가 구매는 불가능한 상태다. WSD에서 금융위기(mini-financial crisis)를 예측한 이유 중의 하나다.

중국의 철강재 가격은 5월 폭락 이후 6월 첫 주 일부 회복, 안정세를 나타냈다. 여름철 비수기 수요는 둔화되고, 이는 글로벌 전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당산시 생산 규제 완화에 따라 공급부족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3분기 수급은 균형을 이루면서 점차적으로 공급과잉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가질 시점이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 걸친 완만한 회복세로 인해 2008년과 같은 폭락사태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중국 내수 가격 총괄

중국 상해 지역의 주요 품목별 가격 현황

단위 : 위안	철근	열연	냉연	도금재	선재	후판
2021-06-01	5,070	5,830	6,180	6,620	5,600	5,650
2021-06-02	5,040	5,770	6,220	6,660	5,640	5,550
2021-06-03	5,080	5,840	6,220	6,660	5,690	5,580
2021-06-04	5,110	5,840	6,230	6,660	5,710	5,580
(달러)	802	917	978	1,046	896	876
전날 대비	▲30	-	▲10	-	▲20	-
5월 말 대비	▲40	▲10	▲50	▲10	▲40	▼130
4월 말 대비	▼160	-	▲50	▲140	▲40	▼120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유통 거래 가격 현황

	열연		철근		H형강			앵글 및 채널(잔넬)		
	포스코 대응재	중국산 (SS400)	국산	중국산	국산	포스코 베트남	바레인 말레이시아	국산 앵글 채널	수입산 앵글	수입산 채널
4.4주	110	110	84	86	96	96	96	89	80	82
5-1주	115	115	89	92	101	99	99	94	80	82
5-2주	120	120	95	100	102	105	105	95	85	87
5-3주	125	125	98	115	111	115	113	101	90	92
5-4주	130	130	100	135	111	115	113	101	90	92
6-1주	130	125	115	137	115	117	117	105	93	95
전주대비	0	-5	15	2	4	2	4	4	3	3
4월 말 대비	20	15	31	51	19	21	21	16	13	13

▷ 중국 현지 오피 열연 FOB 930달러/철근 FOB 765달러



*. 제공 : (주)페로타임즈